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은 가족이 모이는 민족 명절 설에도 국내외에서 열리는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진다.

2월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계속되는 이번 황금설연휴에는 단골 손님인 씨름대회와 2010년 월드컵축구대회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국가대표팀 경기, 순위 경쟁이 치열한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등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설날씨름대회**=2월7일과 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는 프로팀 현대산호중공업과 아마추어팀 선수 150여명이 참가하는 설날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2월7일 백마-거상 통합장사전(90kg 이하), 8일 백호-청룡 통합장사전(90-1kg이상)으로 열려 체급이 다른 선수들끼리 벌이는 대결이 흥미롭다. KBS 1TV가 오후 1시30분부터 중계한다.

◇**신지에 호주 원정**=호주 원정에 나선 신지에는 7일부터 나흘간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ANZ레이

스포츠엔 설 연휴 없다

디스 마스터스에 출전해 세계 무대의 문을 두드린다. 2월15일 하와이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이 열리기 때문에 상위 랭크들이 많이 출전하지는 않지만 신지에는 작년 대회 챔피언 카리 웹(호주)을 넘어야 한다. 신지에는 작년 이 대회에서 웹에게 2타 뒤진 2위에 올랐던 터라 설욕전을 펼치게 됐다.

◇**축구** =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오후 8시 상암장에서 '진짜 데뷔전'을 치른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첫

경기로 상대는 중앙아시아 북방 투르크메니스탄. 남아공 월드컵으로 가는 2년 대장정의 첫 걸음을 떼는 중대 일전이다. MBC가 중계한다.

박지성은 잠시 머물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10일 밤 10시30분 맨체스터시티와 '맨체스터 더비'를 벌인다. 설기현과 이동국(미들즈브러)은 9일 자정 맞대결이 예정돼 있고 이영표도 같은 시간 데뷔 카운터와 일전이 걸려있다.

◇**테니스** =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팀 데이비스컵에서 세계 16강이 맞붙는 월드컵그룹에 20년 만에 북

설날씨름 7·8일 장충체육관에서

신지에 레이디스 마스터스 출전

프로농구·배구 치열한 순위 다툼

귀한 한국이 강국 독일을 상대로 1회전 경기를 치른다. 2월8일~10일 독일 니더 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치르는 방문 경기. KBS-N 스포츠가 오후 9시30분(10일은 오후 9시)부터 중계한다.

◇**프로배구** = 연휴 기간 코트를 뜨겁게 달굴 팀은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치열한 3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은 연휴 첫날인 6일과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격돌한다.

여자부에서는 이번 시즌 4차례의 맞대결에서 똑같이 2승2패를 기록하면서 앞치락뒤치락 1위 쟁탈전을 벌이는 흥국생명과 KT&G가 설날인 7일 맞붙는다.

◇**프로농구** = 6일에는 1위 동부-2위 안양 KT&G(원주), 창원 LG-울산 모비스(창원)의 카드가 준비돼 있고 7일에는 대구에서 대구 오리온스와 전주 KCC가 맞붙는다. 8일에는 2경기, 9일에는 3경기, 10일에는 4경기 일정이 잡혀 있어 순위표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여자농구는 1-3위 팀이 확정된 가운데 4강 플레이오프 한자리를 놓고 천안 국민은행과 춘천 우리은행이 총력전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연남뉴스



이상은

■ 한국 남녀 핸드볼 베이징올림픽 동반 진출

핸드볼 큰잔치 '흥행' 예감

남녀 모두 일본을 누르고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안착한 한국 핸드볼 대표팀 태극전사들이 소속팀에 복귀해 큰잔치 흥행에 앞장선다.

지난달 29일 여자 대표팀이 일본을 34-21로 누른 데 이어 남자 대표팀은 지난달 30일 역시 일본을 28-25로 제쳐 베이징올림픽 동반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남자는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3회 연속 올림픽 진출 자격을 얻었다.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소속팀으로 모두 복귀했다.

오는 17일부터 이란에서 열리는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남자대표팀은 3일 저녁 태릉선수촌에 소집돼 다시 맹훈련에 들어가지만 소속팀이 핸드볼큰잔치 준결승에 오른 선수는 소집이 늦춰진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핸드볼큰잔치를 시작했는데 준결승 및 결승전 일정이 이번 재경기와 겹쳐 4,

5일로 미뤄졌다. 현재 핸드볼큰잔치는 이미 남자부, 여자부 모두 준결승 진출팀이 결정된 상황.

남자는 코로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상무, 경희대가 4강에 올랐고, 여자의 경우 용인시청과 대구시청, 삼척시청, 부산시청관리공단까지 4팀이 준결승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대표 선수 가운데 준결승에서 뛰는 선수는 강일규, 박찬용(이상 인천도시개발공사), 이태영(코로사), 정수영(경희대), 이민희, 김정심(이상 용인시청), 유현지(삼척시청), 안정화(대구시청) 등 총 8명.

이들은 소속팀의 전력 상승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재경기로 인해 뜨거워진 핸드볼 열기를 안동 실내체육관까지 끌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핸드볼협회 관계자는 "대표 선수들이 복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드볼 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본다. 재경기 생중계를 본 국민들이 '핸드볼이 이렇게 재밌는 경기였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표 선수 복귀는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신

박희영 2언더 2위 신지에 1언더 5위

호주여자오픈골프 1R

올해부터 미국 무대에서 뛰게 된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영적 박희영(20)이 2008년 첫 우승을 호주에서 노리게 됐다.

박희영은 지난달 31일 호주 멜버른 킹스턴 히스 골프장(파73·6천82m)에서 개막한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 MFS호주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곁들이며 2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다.

작년 KLPGA 투어에서 우승이 없었던 박희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퀴리파인스홀에서 3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폴시드를 따냈고 2008년 첫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도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2타를 쳐 공동 5위로 대회 첫날을 마쳤다.

우르솔라 위크스트롬(핀란드)이 3언더파 70타로 단독 선두로 나선 가운데 작년 대회 우승자 카리 웹(호주)도 공동 5위에 자리잡고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10번홀에서 출발한 박희영은 페어웨이 안착률 80%, 그린 적중률 72%, 그린 적중시 평균 퍼트 수 1.61개로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다.

전반에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꿨던 박희영은 2번홀(파3)에서 1타를 잃기도 했지만 이후 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신지에는 그린 적중률 83%의 정교한 아이언 샷이 돋보였지만 평균 퍼트 수 1.78개가 말해 주듯 퍼터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신지에는 전반에만 2타를 줄이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13번홀(파4)에서 3퍼트를 범해 1타를 잃었다.

15번홀(파4) 버디로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 했던 신지에는 18번홀(파4)에서 2m짜리 파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순위가 밀렸다.

■ 핸드볼 남녀 대표팀 귀국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 재경기에서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낸 남녀 핸드볼대표팀이 지난달 31일 대대적인 환영 속에 귀국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과 김태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남자 대표팀은 대회 우승 트로피와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전달한 올림픽 본선 진출권 증서를 들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개설했다.

여자는 해외파 6명이 모두 빠져 9명이 들어왔고, 남자 팀도 유럽파 3명이 일본에서 곧바로 소속 팀으로 돌아가 12명이 복귀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플래카드를 걸고 꽃다발을 선수 및 대표팀 관계자에 건네주며 올림픽 본선 진출권 획득을 환영했다.

작년에 열린 기존 예선에서 당했던 중동 심판 판과판정이 국민의 공분을 산 데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흥행으로 이번 재경기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이 쏠렸는데 이를 반영하듯 공항 입국장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태극전사들의 귀국을 반겼다.

임영철 감독과 김태훈 감독은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 베이징올림픽을 착실히 준비해서 기필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갑작스런 관심에 대한 부담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수 여자대표팀 단장은 "이같은 열기가 언제까지 가려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특히 조국의 부름에 만사를 제치고 달려온 해외파 선수들이 경기 직후 곧바로 소속팀으로



남녀 핸드볼 대표팀 수문장이자 부부인 강일규(왼쪽)와 오영란이 지난달 31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기량 뿐만 아니라 지원·저변도 최고 되도록 하겠다"

떠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정형균 대한핸드볼협회 상임부회장은 "일본에는 IHF 관계자와 뒤풀이를 하는 도중 '한국도 일본처럼 관심이 많이 오느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핸드볼은 어떤 구기 종목보다 뛰어난 업적을 거뒀는데 푸대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나 스포츠정책을 다루는 분이 핸드볼을 아껴주고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일원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은 "얕은 선수층과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라며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해 물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을 갖고 있다. 새로운 팀을 많이 창단하는데 대기업의 동참도 이끌어내면서 한국 핸드볼이 기량만 최고가 아니라 지원과 저변도 최고라는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핸드볼 대표팀 "외국인 골키퍼 코치 영입"

일본 도쿄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 재경기에서 일본을 몰라치고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낸 한국 핸드볼대표팀이 외국인 골키퍼 코치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훈 남자 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1일 "현재 한국 골키퍼들이 잘 하고 있지만 베이징에서 유럽과 메달을 다투야 하는 만큼 외국인 골키퍼 코치를 영입해 유럽 쪽의 발전된 방어 기술을 전수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국제핸드볼연맹(IHF)의 지도자 분과위원회에 의뢰한 뒤 적임자를 추천받아 코치를 영입할 계획.

현재 핸드볼대표팀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골키퍼를 보며 은메달을 따낸 최석재 코치가 골키퍼 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영입하는 외국인 코치로부터 지도 방식도 배울 수 있게 된다.

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정도인데 다음 달 안으로 골키퍼 코치를 데려오면 한국 남녀 대표팀 수문장들은 5개월 동안 유럽 선수들을 상대할 비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달 29-30일 이틀 간 열린 남녀 재경기에서 신들린 선방을 펼친 오영란(36·백산건설), 강일규(32·인천도시개발공사) 부부 골키퍼 커플은 더욱 강해질 수 있게 됐다.

골프·콘도·호텔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리 회원권

골프장	콘도	호텔
3,500	1,700	1,900
4,400	6,400	2,100
6,400		

성원 문의 (062)351-0095